

# 남도장터 '소비자가 뽑은 최고 브랜드' 선정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회원수 25만명 온라인 쇼핑몰 전남 시·군 907개 업체 입점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직접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지난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도장터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일 기획상품을 만들어 정기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계절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신규 입점 추진 및 신상품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롯데온, 쓱닷컴 등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 31개사와 제휴를 맺고 이를 계속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개설해 모바일 쇼핑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짜짜짜 남도맛쇼핑' 유

튜브도 개설해 채팅하며 쇼핑하는 라이브 커머스 열풍에 발맞춰 홍보와 판매도 진행 중이다. 현재, 남도장터에는 시장·군수가 엄선해 추천한 907개 업체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8천 535개 상품이 입점해 있으며, 온라인 회원수도 지난해 2만 8천명보다 9배가 늘어난 25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결과 올 6월말 남도장터 매출액은 135억원을 달성,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4000만원 보다 11배나 증가해 농어가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남도장터가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올해의 브

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항상 남도장터 고객과 전남 농수축산물 생산 농어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입점업체에 대한 상세 페이지 작성 등 무료 입점 혜택을 제공 중이다. 남도장터 입점을 희망한 생산자와 농식품 업체는 해당 시·군 농산물 유통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갑오징어 3만 마리 방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갑오징어 3만 마리를 도내 해역에 방류했다. <사진> 맛이 뛰어나 '오징어계의 황제'로 불린 갑오징어는 마리당 평균 2만원의 호가한 고급 어종으로 어가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품종이다. 갑오징어의 국내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더 많아 4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갑오징어를 10대 핵심전략 품종으로 선정해 증자

생산기술을 개발했으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완전양식 기술 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어린 갑오징어 16만2000마리를 생산해 무안과 영광, 신안 등 해역에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무안군 홀통 해역에 방류된 어린 갑오징어는 지난 4월부터 6월 전남 해역에서 확보한 어미에서 나온 알을 육상 수조에서 부화시켜 1-1.5cm로 키운 것으로, 신안군 사육도 해역에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낙지 고소득 자원 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 진행

전남도가 고소득 품종인 낙지의 자원 회복을 위해 고밀도 양식 시험에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낙지는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낙지 소비량 3만6899t 중 수입량은 3만1000t에 달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낙지의 자원 회복을 위해 시험양장을 확대·조정하고 고밀도 양식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국 낙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낙지 생산량은 3795t으로 지난 2018년 대비 6.2%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자원회복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안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16개소 101ha에 낙지 목장을 조성하고, 알을 품은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시험을 추진해 개체수 증가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다 효율적인 양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 '고밀도 시험양장 양식' 결과 기존 대비 낙지 서식구멍이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안과 신안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올해 여수, 고흥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을부터 실질적인 사업 효과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준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유휴 깃발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낙지 고밀도 시험양장 양식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양식 기술을 매뉴얼화해 도내 전 해역의 낙지 자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농식품 대표브랜드 '남도미향' 美 수출길



### 1억여원 제품 현지 유통회사 전달

전남도 농식품 대표브랜드인 '남도미향'이 지난 16일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컨테이너(40ft) 1개에 담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제품은 지난해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은 미국 현지 유통회사인 '울타리USA'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된 제품들은 LA매장에

서 판매되고 현지 쇼핑몰인 울타리(woolartaria.com/)에서도 선보인다. 특히 오는 9월중 온라인 쇼핑몰 내에 '남도미향관'을, 11월에는 LA매장에도 '남도미향 홍보관'을 오픈해 우수한 '남도미향' 제품들을 본격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정정 전남의 우수한 제품들이 더욱 다양하고 많

은 경로를 통해 소개될지 희망한다"며 "새로운 유통망 채널 개척으로 우수 농특산물이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울타리USA사는 미국 한인과 미주류 사회에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3개의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내 생산 유가공·알가공 제품 모두 안전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안전검사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유제품과 계란 관련 축산식품 등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을 예방하고 제조업체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시험소는 최근 한 달 동안 전남지역 유

가공업체 20개소와 알가공업체 8개소 등 총 28개소에서 생산·가공된 제품 66건을 무작위로 수거한 바 있다. 검사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비롯 부패방지를 위해 첨가한 보존료 허용기준 위반여부,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여부 등 위해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산 축산식품을 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영업자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장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천연기념물 후계목 증식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내 천연기념물과 도 지정기념물 보존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후계목 증식에 나선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기념물 중 일부 수목은 수령이 오래돼 수세가 약해지고, 병해충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훼손 우려가 있어 후계목 증식과 보존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천연기념물 19종 45그루(송광사 쌍향수 곽향나무 등)와 도 지정 기념물 13종 26그루(순천 낙안읍의 은행나무 등)를 비롯 옛 전남도청 앞 은행

나무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나무를 중심으로 연구소내에서 증식할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증식할 송광사 천자암의 곽향나무는 고려시대 보조국사와 담양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나란히 꽂은 것이 뿌리를 내려 자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 향나무는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는 듯 예의 바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나무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여성가족재단 '공감소통 가족학교' 온라인 개강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는 31일까지 '공감소통 가족학교'에 참가할 도민을 모집한다. 이번 가족학교는 가족 관련 기관·단체와 활동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족 관련 기관과 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평·등·민·주·적 관점에서 가족의 개념과 의미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가족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운영된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강의와

토론수업으로 구성됐다. 도민 대상으로는 성평등과 가족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온라인 교육과 함께 일부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실험과 훈련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한 가족은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전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